

# 교회소식

교회세운날 2017.6.11

25-47 11월 23일 (성령강림 후 스물 네 번째 주일)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스물 네 번째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주는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의 첫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4시 30분에 흩어져 목장별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7일 : 김은총 Theodore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전미영 / 설교번역: 최은지

11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 \*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성탄행사 : 12월 21일 주일예배

##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47주)

렘 23:1-6, 시 46, 골 1:11-20, 13-17, 뉴 1:68-79

## \* 말씀 나눔 \*

1. 지난 달 나눔에서 실천해 보고자 했던 것을 실천해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눠봅니다.
2. 최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3.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후렴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나 반복해야 할 후렴구가 되는 경우나 습관이나 실천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다음 만남까지 실천해 봅니다.

# 예 배 순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계 22:1-2a,5 ————— 인도자

신양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이바다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시편 42편 1-11절 ————— 인도자

설교 ————— 후렴구가 있으신가요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기다리는 마음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다음 주면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를 맞이 하는 것입니다. 24 절기로는 소설을 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눈이라는 뜻의 소설 이후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여겼습니다. 첫 얼음이 얼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오는 것이죠. 이제 미네소타도 겨울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긴긴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지난 주 주일 아침부터 겨울 산책 모임을 시작한 걸로 압니다. 저는 주일이 조금 분주해서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산책하며 교제도 나누고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미네소타에서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그동안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맹렬한 추위는 그다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어떤 겨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변화 무쌍한 미네소타의 겨울이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눈이 많이 와서 노스쿨 데이가 많기만을 바라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바깥 출입이 적다보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독서량도 많아지고, 음악을 즐기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밤이 긴 겨울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광에 쟁여 놓은 홍시를 꺼내 먹고, 아궁이 솟불에 고이 묻어 두었던 군고구마를 꺼내 먹기도 하면서 긴긴 밤을 달랬을 텐데 추억만 아련합니다. 그래도 겨울이 온다는 것이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벌써 대림절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린 것은 아닌데 대림절이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 우리 앞에 와버렸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고백인 듯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의 간절함을 느낍니다. 기다리며 다가 오는 모든 발자국이 임의 발자국인 듯하다는 시인의 고백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를 읽고 있노라니 대림절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만 있다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